

# 광주경찰 ‘현대판 장발장’ 사회 복귀 앞장

### 지역 경미범죄 사범...지난 5년 간 425명 구제 생계형 범죄 등 사회적 약자 지원...심사도 공정

광주 경찰이 운영중인 '경미범죄심사위원회'가 생계형 범죄로 처벌 위기에 처한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는데 큰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생계를 이유로 경미범죄를 행한 사회취약계층의 안타까운 사연이 외부로 알려져, 지자체의 도움이 손길이 이어지는 등 선 순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5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

년간 경범죄 심사 대상자 중 감경처분을 받은 인원은 총 425명으로 파악됐다. 광주경찰은 심사제도가 지난 2015년 북부경찰서에서 시범 운영된 이래, 감경처분 심사는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연도별로는 2020년(40명 중 40명), 2018년(75명 중 74명), 2018년(66명 중 64명), 2017년(142명 중 139명), 2016년(109명 중 108명)에 각각 감경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감경처분 대상자에 대한 구제율이 90%를 웃도는 이유는 절도, 무전취식 등 생계형 범죄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생계형 범죄도 형사적 처벌이 분명 필요하다"며 "하지만 범죄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자칫 극한 상황에 내몰릴 우려가 있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해 구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회 취약계층의 회복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매달 가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광주 북부경찰서는 복구의 한 단계를 고사리 약 200g을 절취한 혐의로 피의자 A씨(78)를 체포했지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어린 손자를 부양하고 있는 상황에서 몸 아픈 아내를 위해 절취한 점'을 감안해 감경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또 사회적 약자 보호뿐만 아니라 경미범죄 심사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한 심사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심사 최종 결정권자인 경찰서장뿐만 아니라 외부 위원으로 변호사 등 5명을 위촉해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외에도 경찰은 경찰청 운영규칙에 준해, 사건 경중에 따라 심사요건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대상자의 사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결 심판을 통해 훈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경제 사범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 여부, 정신박약 등을 함께 고려해 감경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광주지방청 한 관계자는 "경찰은 즉결심판을 통한 적극적인 구제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며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막아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데 부단한 노력을 기하하겠다"고 말했다. /최문석 기자

**오늘의 날씨**

장성	19~28	흑산도	19~24
담양	20~29	구례	20~30
화순	20~28	곡성	19~29
영광	19~28	완도	20~26
함평	19~28	강진	20~27
무안	19~27	장흥	20~27
영암	20~28	해남	20~27
진도	20~26	고흥	19~26
신안	21~27	보성	19~26

일출 05:24 일몰 19:50  
월출 20:57 월몰 06:03

목포	만조 03:05 14:56	여수	만조 09:42 22:28
	간조 08:17 20:14		간조 03:49 15:41

문의 :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없이 131

## “여직원 성추행 공기업 간부 해임 정당”

법원 “고도의 청렴성 요구”  
법원이 회식 자리에서 다수의 여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성추행한 공기업 간부의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5일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A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모 공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공기업은 내부고발자 익명신고 시스템에 A씨의 성희롱에 관한 고충 신고가 접수되자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A씨를 해임했다. 회사 회식 자리 또는 이어진 술자리에서 간부인 A씨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여직원들의 고충이 신고의 주된 골자였다. 한 여직원은 회식 다음날 출근해 상

사인 A씨에게 전날 있었던 일을 상기시키는 한편 불쾌했다며 재발 방지를 당부했는데 이후 업무처리에 관한 간섭·인신공격·각종 음해 등 A씨의 보복성 행동이 계속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씨는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다. 소명 기회를 차단하는 등 방어권을 침해했다. 해임은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임에 관한 회사의 징계 절차 과정에 어떠한 하자도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기업인 회사가 수행하는 직무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고려하면 이 회사 임직원에게는 공무원에게 준하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영민 기자



“배고프고 짜증나”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5일 여름철새 검은머리해오라기가 담양의 한 하천에서 먹이 사냥을 하다 실패하자 깃털을 세우고 물을 발로 차며 신경질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햇볕이 잠시나자 빛을 받은 나무가 물에 반영돼 북극지방의 오로라 처럼 묘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 ‘드라마 제작비 2억원 반환’ 방송불발...영광군 2심도 승소

영광군이 드라마 제작 지원금을 반환을 요구하며 제작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2민사부는 영광군이 A·B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드라마 제작 지원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회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영광군은 2017년 12월 A·B회사와 드라마 제작 지원 계약을 작성했다. 영광을 촬영지로 하는 드라마를 제작하는데 2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방송 예정일은 2018년 상반기였다. A사와 B사는 독립된 계약 주체지만, 이 계약과 관련해서는 B사가 대표해 진행하기로 했다. B사는 드라마 제작에 들어갔지만, 2018년 9월까지도 드라마 제작을 완성하지 못했다. 해당 드라마는 소송 시점까지도 완성되지 못했으며, 방영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영광군은 A·B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사의 채무면제에 관한 합의가 문언상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피고들은 연대해 영광군에 2억 원을 지급하라. 영광군이 청구한 지연 손해금 중 일정액은 기각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A사는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사가 드라마 제작 지원 계약의 계약서에 당사자로서 기명날인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A사도 계약의 채권·채무를 가지는 당사자로 확정됐다고 봄이 옳다”고 판단했다. /김영민 기자

## 골프장 캐디 피격 총탄, 군부대 ‘유탄’ 확인

사고 탄두 강선흔과 일치...육본, 재발 방지 최선  
담양군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가 총탄에 맞은 사건 조사 결과, 총탄은 군 사격장에서 날아온 유탄으로 확인됐다. 육군본부는 지난 4월 23일 담양군 소재 민간골프장 직원(캐디)이 업무 중 총탄을 머리에 맞아 다친 사고의 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사고원인은 골프장 인근 약 1.4km 떨어진 군부대 사격장에서 ‘사격 도중 발생한 유탄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사격에 참여한 총기 11정을 회수해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해 사고 탄두에 남겨진 고유의 ‘강선흔’과 일치하는 총기와 사격 인원이 확인됐다. 유탄이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격 장면에 대해 CCTV 녹화영상 판독과 사격통제관·부사수의 진술 등을 추가로 확인한 결과, 사격 간 위험을 유발할 만한 고의적인 행동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사격 자세를 수시로 바뀌면서 사격하는 특성상 사격 자세의 불안정성, 조준선 정렬 시 총구의 상·하 움직임 등에 의해 유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됐다.

사격장 안전관리 조사에서는 사격장에 늦게 도착한 일부 인원이 사격전 위험성 예지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유탄을 발사한 사격 인원도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은 해당 사격장을 ‘차단벽 구조물 사격장’으로 개선, 구조로 보안을 거쳐 사격장 안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개선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사격장 운영은 중단한다.

사고 원인이 군부대 사격장의 유탄으로 확인된 만큼 피해자 치료와 회복을 위해 육본 환자전담지원팀을 편성해 지원하고, 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피해배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육군본부는 지역 관할 군사경찰부대와 육본 중앙수사단 전문 수사요원으로 수사본부를 편성해 2개월간 사고 원인 등을 조사했다. 육군본부 측은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철저한 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찬 기자

**우리지역 광주·전남 제품**  
**지역인재 고용창출에 앞장서는 기업**

**스탠드형**  
사무실, 가정용  
어린이집, 유치원 특화제품

**벽걸이형**  
경로당, 병원, 노인복지시설  
사무실, 초중고 학교용 특화제품

**DK** 디케이 주식회사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